

구속사적 성경해석

박 종 칠
(조교수, 구약학)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설교와 성경연구 그리고 그 사상적 진술에서 “구속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국교회가 이러한 신학적 기류를 타게 된 것도 그 나름대로의 배경이 있는 줄 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신들의 역사적 삶에 대한 확고한 방향을 설정 못한채 표류하므로, 어떤 환경과 순간에서 그 폭발적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역사적 미래에 대한 지평선이 어둡게 되었다. 이러한 크리스찬의 삶의 태도는 현대 신학의 무책임한 난발에 의해 형성되었다. A.슈바이처의 “철저종말론”이니 C.H.다드의 “실현된 종말론”을 수입하여 종말론적 의식을 강조한 결과(그 신학 체계는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기다림도 현재에 대한 신앙도 없어지고 만 것이다.

그리고 초절주의적 역사관을 강조하는 바르트적 위기신학은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이땅 위에서의 역사적 발판을 앗아가 버렸다. 더우기 요즈음에와서는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의 이름하에 마르크스적 진보 역사관이 기독교의 총체적 구원관을 지금 여기서의 사회의 일면적, 단위적 구원관으로 대체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신자들은 기독교의 본질에서 보다 과격 학생 운동이니 산업구조 변혁 운동에서 기독교의 본래적 사명을 추궁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어지러움 속에서 신자들은 그래도 기도원적인 신비주의적 체험과 황홀지경에서 만족을 찾아보려 한다. 그러나 이것 역시 실제적 삶의 역사는 아니다. 또 “매일성경” “생명의 양식” 등 날마다의 경건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자 하지만, 성경에서 본문의 역사적 문맥을 무시하고 단지 오늘의 나에 대한 의미를 찾고 적용하는 것으로 그칠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늘의 주관적 의미며 실제 적용에 앞서 어제의 객관적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오늘의 나와 관계되며 미래에 대한 의미를 주어야만 한다는 인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오늘의 한국 교인들이 성경을 연구할때 과거에 있었던 교리학적 구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그 구원이 어떻게 나에게와 미래로 연관되는가 하는 “역사”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한국 교회는 현재와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그 신학 활동과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체계 잡힌 반성을 함으로서 건전한 성경적 체계를 찾아 구성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지가 구속사에 대한 관심의 지평을 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교회 자체의 시대적 형편에서 구속사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고 해서 이 사상이 지금 막 생긴 시대적 산물이란 뜻은 아니다. 이 사상은 이미 서구 기독교 사상사와 교회 실천 생활(특히 설교에서)에서 논란되어 왔던 것이다. 이것이 단지 오늘날 구원사를 강조해야 할 입장에 처한 한국교회의 형편과 상응하게 되었을 뿐이다.

서구 기독교 사상계에서 구원사를 역사성이 없는 진리(케류그마)만 강조한 결과 뿌리없는 구원의 초절성에 의해 구원의 역사적 사실이 잠식되었던 오류에 대하여 강조되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구속사를 강조한 결과 그 정반대의 역사주의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객관을 피하고 가능한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살펴보려 한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구원 자체가 하나님에게서 연유함을 성경 이야기가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 이야기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연결해서 인류에게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준다.

A. 구속사 정의

성경 이야기는 한마디로 구속사이다. 그러면 구속사란 무엇인가? 독일어로 Heilsgeschichte로 통용되고 영어로는 Redemptive-History로 번역되고 있다. 이것은 성경적 용어도 아니며 어느 한 주장들의 대명사도, 개혁자의 전유물도 아니다. 다만 신학자들이 즐겨쓰는 용어일 뿐이다. 하지만 그 의미는 천양지차가 있는 내용이다. 왜냐하면 단순한 성경 이야기의 구속사에 사람의 철학을 넣어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을 살펴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성경이 말하는 구속사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나 할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살려고 하시며 또 자기 계획을 실현하려고 하는 모든 역사적 사실들의 총체를 뜻한다고 본다. 여기에는 몇가지 항목이 있다.

- 1)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나아가는 방도와 그 길로 인도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과 원수들에게 계시하는 것들이 있다.
- 2) 또한 이 구속사에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 곧 약속과 계명,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위협과 관계되는 내용이다. 이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구원사는 약속사 또는 언약사라고도 하는 것이다.
- 3) 또한 여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사랑과 교제에 대한 강조가 나타난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높고 깊은 사랑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죄로 인한 수난사도 있는 것이다(시47, 106, 신32). 연애해서 결혼하는가 하면 또한 파혼하는 관계로 쉽게 생각할수 있다.

4) 이 구원사는 또한 예배사이다. 그 백성이 드리는 제물, 기도, 찬양, 성별과 결례가 있다. 역사들을 대변하는 데는 많은 국면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것을 구원사의 난해로 볼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하나님의 사랑이 수많은 사건들로 구체화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일률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신앙지식이란 것도 이러한 사건에 대한 지식이 되고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써 모든 신앙이 역사적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믿으려고 하면 처음부터 철학을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성경 이야기는 먼 고대적 역사와 문화에서 온 이야기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이 고대 이야기를 진술하고 해석할 목적으로 교회의 말씀 봉사라는 채널을 사용하신다. 보통 예배 형식을 통한 이 말씀 봉사에서 오늘날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되며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된다. 이방 종교에는 형상이 중심이 되어 어떤 주문적 파악으로 축복을 끄집에 내려고 한다. 그래서 자기 신의 임재를 보증이라도 하려는 듯 형상이 필요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주문도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생생한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이 자기 백성에게 온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천리안적 투시력이나 주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듣는것"밖에 없다. 형상없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은 자주 이런 고백을 한다. "주여 말씀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겠나이다".

B. 하나님과 인간의 교통의 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교통하기 원하며 함께 거주하여 함께 동행하기 원하신다. 어떤이들의 말처럼 떠돌아 다니기 좋아해서 쉬을 찾지 못하는 유목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서로 교통한다. 이 교통이 고대 이스라엘의 여행길에서는 "행진"으로 나타났다. 서로 같이 가는 것이다. 땅을 통과하고 시간을 통과하는 여행길이다. 여기에 이 지점, 저길, 이 비탈길, 저 경사지, 하룻길, 칠일째, "구름이 증거막에서 떠 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출발하는"(민10:11)지표와 달력이 있는 통행길이다. 우리가 구원사를 강조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역사적 존재로 역사안에 살도록 창조하셨고 영원한 집을 향해 행진하도록 해 두셨다.

하나님이 인간과 동거 동행한다 할때 그것은 침묵의 동거가 아니며 침묵

의 행진이 아니다. 하나님과 자기 백성은 서로 말한다. 하나님은 수많은 행동을 하시고 이로써 말씀하시고 이로써 그 행진을 강하게 진행되도록 한다. 종종 하나님은 자기 행위를 고지(告知)하고 후에 이 행동을 실제에 옮기신다. 이로써 하나님은 자기 이름, 자기 뜻, 자기 계획을 계시하신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른다. 이것이 우리가 구속사를 계시사라고 부르는 이유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하심에서 떠나 ‘사건’과 ‘행동’에만 제한해서 (사건 배후의 계시를 찾아) 구속사를 구성하려는 것(쿨만)³이나 제 2 바티칸 문서들의 경우)은 잘못된 것이다.

· 계시의 길

이러한 구원과 계시의 역사적 성격을 잘 드러내 주는 말을 성경은 “길”²⁾ (테레크)이라고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심을 나타내는 말인데 구원사 이해에 적절한 말이다.

예컨대 신8:2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자기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인도하셨던 길을 생각해야만 한다고 한다. 모세가 이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할 때에는 단순히 자기 걸어온 노정을 기억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길”이란 말에는 표적도 기사도, 어려움도 즐거운 경험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셨던 특수한 계시의 길이었다(신1:32,33, 24:9, 25:17). 이스라엘은 이 길이 자기들을 위한 더 먼 장래 역사를 위한 것임을 알아차려야만 했다. 그러기에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한 행진은 미래를 향한 돌이킬수 없는 행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돌아 간다고 할전대 준엄한 심판만 있을 따름이다(신17:16, 28:68).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그의 송별사에서 바로 이것을 말했던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땅 중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의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라”. 이렇게 “길”은 계시사와 구원사라고 부를수 있는 적절한 명칭이다.

· 계명의 길

“길”의 의미를 더욱 밝혀 주는 말로써 “여호와의 길로 행하라”는 말씀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관계한다. 구원의 길과 하나님의 율법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행길은 여호와의 율을 알고 경외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다. 이 하나님과 겪은 경험으로 계명과 기구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이방신과는 달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길로 가도록 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 하나님 계명은 이 거룩한 모습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계

명이 나오게 되는 것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 서언에서도 “나는 너를 애굽땅 중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하므로 나를 배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찌어다(계 일계명)고 하고 있는 것이다(신8:2-6참조).

이스라엘이 범죄할전대 이는 여호와께 불신실한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일부러 무시하는 처사다.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신이 들어오는 것이다(신32:12,17). 성경은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길에서 떠났다”³⁾(출32, 신9:12,16, 11:28, 13:5, 32:15-18, 사2:17, 시95:10, 히3:10)고 한다. 그러므로 길은 하나님의 행적과 여호와의 길에 반응하는—공정적이든 부정적이든—사람의 행위를 뜻한다. 고로 구원사와 우리는 서로서로 상관된다.

· 계획의 길

마지막으로 이 길은 여호와의 계획과 작정의 길을 뜻한다. 이스라엘이 여행길에서 위기가 왔을때 모세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과 계획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출33:13)라고 하였다.

같은 맥락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말한다(사55:8,9). 신약의 바울도 자기 선교 여행시에 복음의 장애를 만날 때에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였다(행13:10). 에베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고 하였다(행18:25,26). 이로 보전대 구원사를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모든 하나님의 길의 종결론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11:33)는 말씀이다.

·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는 것을 생각할전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안정이 있고 세계에 대해서는 미래가 있는 구원사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앞서가고(외아웨호렉 리프 네-헬 출13:21)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가고(브레크레카 이마누 출33:16)⁵⁾,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다(이레크……브키러브누 출34:9). 하나님은 이스라엘 앞에서도, 뒤에서도 호위하신다(사52:12). 이 일이 어찌 과거 하나님 백성에게만 되어지는 일이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이렇게 가실전대 오직 한

길이 하나님 백성에게 있다. 그의 구원의 길로 함께 가는 것이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 앞에서 가는 길이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며 하나님 뒤따라 가는 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길을 좀 더 생각해 보자.

첫째, 하나님 앞에 가는 행진은 그의 영광스러운 면전에서 걷는 길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거워하며⁶⁾(창24:40, 48:15,16, 시56:14, 116:7). 하나님을 존귀롭게 하려는 삶이다. 이러한 생활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창17:1). 그러기에 다윗왕이 솔로몬에게 말한대로 역대왕들에게 한 말도 바로 이 황금률이었다⁷⁾(왕상2:4, 3:6, 8:23,25, 9:4, 왕하20:3) 하나님 앞에서의 삶일진대 거룩한 삶이다.

둘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친밀한 교제를 하는 삶이다. 둘이 서로 같이 갈진대 사랑의 신뢰로 가지 않으면 흐트러질 것이고, 서로 서로의 계획한 바와 목적이 같아야 하는 것이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⁸⁾(창5:22,24, 6:9, 미6:8, 말2:6).

셋째, 하나님 뒤따라 가는 삶은 여호와를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이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존하면서 행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택하시고 애굽에서 해방 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하셨다. 에레미야는 예루살렘 거민에게 외쳤다: 네 소년 때의 우의와 네 결혼 때의 사랑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좇았음을 내가 너를 위하여 기억하노라⁹⁾(렘2:2, 비고 왕상18:21, 신13:3,4)이 하나님을 좇지 않고 다른 이방신을 좇을 때에 이스라엘은 음행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제 일계명을 어기므로 확실한 멸망이 온다(신1:36, 4:3, 6:14, 12:30, 민14:24, 32:12, 수14:8,9,14, 왕상11:4,6).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무서운 형벌을 경험했다. 하나님을 뒤쫓아 가는 삶이란 신앙적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Nachfolgung)길이다.

C. 환상적 구원의 길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동거 동행 하신다고 말하였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고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그렇다고 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길이 결단코 태평무사한 하늘 여행, 황금 보석, 유토피아적 여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 길에는 건너야 하는 강이 있고 넘어야 하는 산이 있고 지표가 있고 역사적으로 측정하는 연대가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길을 두고 하나님과 자기 백성간의 수평적 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세계 안에서 우리 인생이 본향을 찾고자 할때 환상적 이고도 철학적이고도 수직적 여행을 꿈꾸는 버릇이 있다. 이 지상과는 유리된 채 높은 하늘만 쳐다 보며, 하늘나라로 되돌아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다. 인간의 영혼은 잘못 미로에 빠졌으니 돌아가야 하고, 죄악된 인간의 육체에서 사로 잡혀 있으니 해방되어 그 본래의 처소, 즉 신적 빛의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¹⁰⁾(Verlösung)이라는 것이다.

이 해피한 이념이 초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유희하여 알을 낳은 것이 성경적 구속사를 비틀어 놓게 만들었다. 신플라토주의로 나타났고 이것이 당시 갓 생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다. 여기에서 동방의 파사 종교의 모티브와 유대주의적 신비주의가 혼합되어진 다음 신약적 표현들과 연관되면서 기독교적 위험도 모른채 복음 전파에만 열중 하였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내막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 낸 사상 과정이 그리스도 탄생 당시의 문화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1세기 후반기에 시작하였던 그 사상이 2세기 경에는 성장하여 지대한 영향을 초기 교회에 미쳤던 것이다.

노스틱 세계관

여기서 우리가 구속사 강조를 아무리 해도 손해될 것이 없는 것은 우선 역사상에 나타난 이 노스틱주의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사상의 세계관을 간략히 개관할 필요가 있다. 2세기에 발전된 노스틱주의 사상 체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의 세상과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하는 등, 현재 존재 질서의 의미로서 바로 구속사에서 생각하는 주제들을 그들은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성경적 구속 진리를 왜곡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그들에게는 악의 성격 문제가 기본적 사상을 이루고 있다. 악은 물질에 거주한다고 봄으로써 악을 제거해 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물질은 악이고 영은 선하다고 하는 기본 사상에서 출발하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물질세계)를 창조 하셨다고 하는 창조 역사도 그들의 사상에 맞추어 타협해 내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참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을 구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된 하나님은 높은 곳에 좌정해서 그는 우리가 지식할수 없는 분으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에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창조 하셨으므로 참된 신보다 낮은 신이라는 것이다.

이쯤에서는 노스틱주의는 창조에 대한 다양한 설명을 하려 든다. 이들 대부분이 가르치는 바는 악이 세상 창조 전에 영적 실존으로 들어와서 질투와 영적 교만에서 자라다가 그만 인간의 순수한 영혼이 악한 몸에 가두어 졌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천한 물질의 신과 그 힘의 통치에 부속하게 되었다고 한다. 계속 설명하는 것은 선한 신은 너무 거룩하여 악한 세상을 창조 할수 없었다. 그러나 인간이 거주하는 한 장소를 제공키 위해 이 선한 신은 자기 보다 덜 거룩한 신을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이온이라 함)이 계속

천해져서 물질을 만들어도 괜찮을 정도의 거룩한 신이 되었는데 그것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만물의 근원인 참 신적 존재에서 수많은 에이온들¹¹⁾(aeons)이 나왔는데(신플라토 주의의 유출설)¹²⁾그 중 하나의 에이온이 구약신이라는 것이다.

인간 영혼의 갈망도 이 인간의 본래적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복귀에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노스틱주의자들만이 가지는 특별한 비의적 지식¹³⁾(gnosis)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사상을 기독교 교리 체계에 적용할 때 엄청난 귀결을 가져왔다. 그리스도의 참신이 스스로 만든 신적 존재로 최고의 에이온일 뿐이다. 그리스도가 성육에 실제 몸을 갖고 있을 수 없는 것은 너무 거룩하여 악한 물질에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인간 형태로 나타난 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가현주의(docetism)를 주장한다. 또한 노스틱주의는 죄는 모든 물질에 존재한다고 하므로써 기독교 구속 교리를 왜곡시켰다. 구원이란 다름이 아니라 물질에 사로 잡혀 있는 영을 그 몸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구속이란 참된 영의 세계에서 물질(악의) 세계로 와서 사람들도 이 참된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스틱 주의는 그리스도의 실제 성육하심과 십자가상의 실제 죽음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부활은 우스운 것이며 모든 물질은 악한 것 뿐이다. 이렇게 노스틱주의는 바울이 말한대로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딤후6:26)이지 구원 계시는 아니다. 이런 거짓된 사상 체계를 증명이나 하듯 이들은 자기들의 원리를 스스로 적용할 때(윤리)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초래시키고 말았다.

한 무리는 몸은 어쨌든 죄스러운 것이고 죽을시에 던져 버릴 것이니 방탕하게 살아도 죄 될 것이 없다고 믿는 무리가 있었는데 하면 또 한 무리는 몸은 죄스러운 것이니 굶주리고 천시여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러니 같은 뿌리에서 방탕주의와 금욕주의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구원 사적 메시지를 송두리째 삼켜 버릴려고 하는 철학 체계에 맞서—이 호시적 노스틱 사상이 신약 사상에서도 엿보인다—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다. 복음서에서 요한은 목격자로서 예수님의 실제적 육신의 사역을 기술하면서 특히 십자가를 강조한다. 요한일서에서 “우리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바”(요일1:1)라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을 고백하는”자와 동일시 한다(요일4:2). 골로새서도 이 노스틱 교리를 반박하고 있다. 계시록의 니콜라당은 아마 노스틱 주의자들일 것이다.

구속사에서 영지주의를 생각해야 할 이유

우리가 구속사적 사고를 하고 구속사적 설교를 구상함에 있어서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는 구속사가 지상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역사적 성격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가는 길은 이 지상 위의 일이며 이 지상을 통과하는 길이다. 하나님은 구속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지표, 시간적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자로 천지의 창조자이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은 것은 껴림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의 인간과 더불어 가는 길에 피조된 시간과 지상의 역사가 거러김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계시, 그리고 구원의 역사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플라토주의, 영지주의, 이원론 사상을 배격하는 길이다. 일찌기 서머나 폴리갑의 제자며 2세기 리온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가 이 노스틱 사상을 논박할 때 구원사를 주도적 원리로 삼았던 것이다.

그는 바울의 긴 문장 엡1:3-14에서 한 핵심적인 말 곧 “경륜”¹⁴⁾(*Oikovmύia*)을 찾아 내어 하나님 구원의 길을 교회학적 의미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의 대조속에서 그리스도가 첫 아담의 타락의 길을 거슬러 구속한다는 이론 곧 “복귀갱신”¹⁵⁾(*ανακεφαλαίωσις* recapitulation)을 주장한 것이다. 바로 이러한 그의 생각은 사도신경 형성에 근거가 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그 구속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 노스틱 사상을 우리가 상고하는 것은 그들 성경 해석의 풍유적 방법을 저지하기 위해서이다. 풍유적 해석이란 역사로 기술되어 있는 모든 것이 하나의 높은 실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풍유적 해석은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의 역사적 성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하와가 그후에 만들어 졌다 할 때 풍유적 해석은 아담은 영혼을 상징하며 하와는 감각적 직관을 상징한다고 한다. 남자의 영이 그 경계심을 잃을 때에(아담이 깊이 잠든 것) 감각성이 깨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에덴동산의 내강은 헬라 윤리학의 네가지의 덕, 즉 지혜, 용감, 근엄, 공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세 족장들을 두고서는 아브라함은 계명에 대한 덕을 상징하고 이삭은 내적 경향에 대한 덕을 야곱은 실천하는 덕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풍유적 해석에는 플라토적인 헬라 철학 사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 영원한 진리는 이데아의 세계에 거주하며 지상은 그 본거주지와는 너무 멀다. 우리 인간은 파선되어 먼 섬에 왔기 때문에 진리의 광도가 희미해졌다. 그러므로 지상은 그림자의 세계로서 상징형태만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순수한 진리를 찾기 위해서는 상징의 배후에 있는 무시간적 영원한 진리를 찾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빛의 광명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구실에서 하나님의 수평적 길을 터무니 없는 수직적 방향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풍유적 해석을 본고의 주제와 무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이 방법이 교회의 실교와 강해를 수세기 동안 지배해 왔기 때문이다. 풍유적 해석은 오리겐과 루터 사이의 13세기를 휩쓸었다. 어거스틴은 이 풍유적 해석의 대가였으며 루터 역시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것이다(후기 작품 창세기에서 조차).

마지막으로 풍유적 해석자들은 왜 이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그것은 성경을 시대에 부합시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고대 헬라인들은 고대의 신에 관한 이야기들을 풍유적 해석을 통해 호머에 적용시켜 보려고 노력하였다. 풍유를 성경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내용과 그 당시 헬라문화의 생각들을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풍유해석 방법을 일종의 변증적 무기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다.

알렉산드리아 필로(25BC-AD45)는 구약 배경을 갖고서 헬라 문화 중심지에서 살았던 말하자면 두 세계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헬라사상과 구약을 서로 연결시켜 그 당시 천시 받았던 유대주의를 격상시킴으로써 유대인이 멸시 당하지 않게 하려 했다. 그는 풍유적 방법을 사용해서 모세의 율법이 헬라 철학과 멀지 않음을 보여 주려 하였다.

속사도 교부들과 변증가들 역시 필로와 같이 이 방법을 받아들여 그 당시 형편에서 기독교 신앙고백을 했다.

후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와 오리겐이 신플라토 주의 사상을 기독교에 소개하면서 이 방법을 교회에 유입하게 된 것이다.

이로 보건대 기독교회에 필로의 영향은 지대하여 중세기의 스콜라 신학과 신비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역사적 서술을 풍유적 방법을 적용해서 무시간적인 것으로 만든 것이다. 필로는 이 풍유로써 유대주의를 메시아 세계 종교로 만들려고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써 그는 구약의 성격과 목적을 왜곡시켰다. 구약은 역사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적 책으로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미래를 지향하고 약속하신 메시아적 장래를 바라보도록 하므로써 열려진 종말을 갖고 있다. 그런데 유대주의는 모든 지혜가 모세오경에 주어졌다고 봄으로써 장래를 지향하는 구약의 역동력을 상쇄시킨다. 유대주의는 구약의 예비적 성격에 대해서 아무런 안목을 갖고 있지 않았다. 새 언약에서 성취된 것도 물론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주의 맹점을 고후3:14,16에서 "수건"이라고 했다.

이렇게 알레고리컬한 유대주의 해석으로 인해 메시아를 지향하는 구속사적 맥은 사라진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 이야기에서 유대주의를 공격하고(롬4장과9장, 갈3장과4장) 있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구약이 구원사적으로 또한 기독교론적으로 해석되지 않을 때에는 알레고리컬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D.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작정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가실 때 그것은 때와 장소를 거처가는 행진이다. 이 동행함이 아들과 성령을 통해 나타낼 큰 사건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구약적 진행이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는(요1:14) 것이 신약이고 그 시기를 "때가 차매"(갈4:4)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이 말을 흔히들 교회사자들이 생각하듯 진화론적 문화적으로 이해 해서는 안된다. 진보적 역사관을 주장하는 이들은 마치 여름 과실이 태양빛에 익듯이 모든 것이 성숙해 졌다는 식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스라엘 역사의 소산은 아닌 것이다. 반대로 선지자가 수세기 전에 명약관하하게 말했듯이 이새의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고 했던 예언의 성취이다(사11:1). 다윗 왕조는 잘려진 나무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역사 발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다윗의 약속된 자손이 왔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다. 그러나 "때가 차매"를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당시 헬라 문화 체계가 세상의 구주가 오시기에 무르익었다는 식, 즉 로마의 빠른 교통망, 헬라인이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이 해답을 주지 못하여 갈급해 하는 당시의 모든 문화적 형편이 세상의 구주가 오실 차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유대인도, 세상도 구주가 왔으며 깨닫지 못했고 십자가의 말씀이 헬라와 로마인들에게 달리 받아들여졌음을 말하고 있다. 문화가 복음을 정의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문화를 밝힌다.

우리는 "때가 차매"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부터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때를 취하고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정하셨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지상에 그리스도가 오도록 예비하셨고 항아리에 물이 넘쳐 넘실거리듯이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그때가 바로 아구스도 황제때였다. 그러나 왜 그때였는지, 왜 하나님의 아들 인류의 구세주가 가인 출생시에, 혹은 이삭 출생시에, 오시지 아니했는지는 우리는 모른다.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행1:7)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그때를 정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것을 붙들고 계신다.

그러면서 역사는 전진하므로 우리를 위한 그 목적인바와 중심적 순간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두드릴 때 하나님 왕국이 문앞에서 있는 카이로스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 우리를 위한 역사의 절정이 나타난 바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전파의 때는 이미 새로운 카이로스 인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원하는 때에 자기의 기쁜신 메세지를 전파하는 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민을 위한 찬양의 대상으로 증거하신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형이상학적 조직을 통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성숙해 졌다고 하는 때도 아니라 다만

정한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바울이 디모테에게 말했듯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하시려고 한 그말대로다(딤후2:6)

요컨대 역사란 스스로 독자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적인것은 아니다. 역사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때와 순간(기한)을 자기 계획에 따라 만든다. 역사란 커다란 덩어리가 아니라 중심이 있고 획기점이 있는 것이다. 거기에는 오르막이 있으며 내리막이 있다. 이 모든 시간들이 서로 구원사를 형성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위에서 다스리고 성령은 그 명령을 수행하신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oikonomia)이라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시고 배설하시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¹⁶⁾(엡1:10, 3:2,9).

성경은 또한 구원사를 말할때 때의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이 "오늘"을 강조 하는 듯이 보여도¹⁷⁾(롬3:21, 고후6:2, 엡3:10, 골1:26) 그것은 어떤 시기를 강조하는 말이다(비교 롬 16:25,26). 오늘은 위에서 부터 관계되는 오늘로서 지상역사의 수평적 문맥에서 그 내용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 구원의 날을 섬기고 소개하고 있는것이다.

이러기에 시대의 전진이며 충만, 이른날, 마지막날, 이 세대 올세대란 말이 성립되는 것이다¹⁸⁾(엡1:10, 행1:2, 히2:26, 6:5, 고전10:11등).

하나님의 작정에는 먼저 구약이라는 때가 있어 미리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활동은 구약으로서 단편적 특징에 의해 특징 지워지고 여러부분과 모양으로 이루어 졌다(히1:1). 그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로써 말씀 하셨던 때가 있었다. 이런 빛에서 우리는 구약의 역사적 복합성을 인정하고 항구적 요소와 가변적 요소를 구분해야 한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공동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뜻은 항구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형태들이나 자기 백성의 응답은 가변적인 것이다. 구약의 때는 그 형태들이 예비적이고, 지향적이고 그림자적인 단계이다.

신약적 특징은 "성취"이다.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1) 구약의 많은 것이 지금 충만하고 실제적이 되어 그 목적에 도달했다는 것이고 (2)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 봉사들의 다양한 형태들이 그 기능을 완성 하였고, 폐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미 결혼 날자가 이르렀으며 사랑함은 그 목적에 도달한 것이다. 그것은 결혼생활에서 성취된 것이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사랑의 역사의 보조수단, 예컨대 사랑 편지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결혼생활 속에서 사랑의 편지를 주고 받는 감정 때문에 탄식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몸"(실체)을 가진자가 "그림자"를 향해 뒤쫓아 갈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을때에 이러한 기본적인 틀을 고려 해야만 한다.

하나님을 보되 교회를 향한 자기계획, 자기 사랑, 자기뜻을 보아야 한다. 전에는 그렇게 되어갔고 지금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말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때와 기한(계기)을 존중히 여긴다. 시간 속의 전진과 그리스도 안에서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세되는 면을 존중히 여긴다.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은 대답하시되 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성령과 신부가 말씀 하시기를 오라"고 하신다(계2:10, 2:17).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역사적 거리와 연결되며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능케 한다.

만물의 창조자요, 구속자 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역사적 거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세상에 오신자로서 때가 하나님의 결정적 구원의 뜻을 나타내신 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역사주의는 모든 것을 역사 안에 가두어 상대화 하며 알레고리는 만사를 무시간적 이데아에로 바꾸어 버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시간과 역사의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거리와 통일성을 동시에 존중히 여긴다. 이 깊은 지식의 비밀이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깊이 연관되어 있다. 구약에서는 그분에 대해서 두가지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미 현존해 있지만 또한 그가 아직도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가 구속자로 활동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그의 탄생, 죽음, 부활의 날이 도래해야만 한다고 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지상을 통치하며 수많은 행동들을 하셔서 교중에게 구원을 나누어 주신다. 동시에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은혜는 존재 하였지만 칼빈이 말한대로 아직도 그 은혜가 "유랑하고"(roaming)있는 것이다¹⁹⁾(기독교 강요 II/214, III125). 동시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은혜는 성취로 정복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서 증보자로 좌정하는 역사적 사실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다. 우리는 그의 임재, 그의 오심을 구약에서 읽을 수 있고 하나님 교리에서만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방인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수치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방인의 문화권에서 먹고 마시고 사는 생활에서 아브라함은 주의 계명을 지킬 것을 배웠던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시간을 잡고 처해 있는 환경의 세상에서 그 백성을 끄집어 내지 않으셨다. 그러기에 구약 시대에서는 믿는자들에게 개종의 확신을 분명히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이 모든 일에서 역사는 역동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율법주의는 상태적인 입장에서 무시간적 규범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다. 그것이 헬라 철학적이고 유대주의 율법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에는 이스라엘이 한걸음 한걸음 발자국 놓는데도 주의 길로 서고 걸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비참한 노예된 형편에서 불러 주시는 그 순간부터 이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해 놓은 미래의 지평선 안에서 자기 생을 놓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과 성령이 오신다는 그 지평선 안에서 생을 꾸려 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의 통찰력이며 사랑, 감정이며 확고 부동성이 증진하도록 계속 역사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성경 이야기는 또한 계속되는 타락 배역을 나타내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역사가 수난의 역사가 되는 것도 보여준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욕되게 하여 최후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니 사망의 해골 골짜기(바벨론 포로생활)까지 내리쳐박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 전체 이야기는 아직도 계속하는 무대가 열린다. 하나님은 이혼을 한 후에도 무덤에 내려간 후에도 자기 권능으로 불러 주시는 것이다. 새 시대가 온 것이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온 것이다. 하나님 사랑이 정복하는 것이다. 모든 불신과 파괴, 무능력과 무지 가운데서도 신앙과 사랑의 역사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원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덕 뿐이다. 히브리서 11장에는 환상적인 유평피아적인 길이 아니고 이 땅 위에 나그네로 거주하면서 험난한 여정을 걷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와 그 기한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다.

오스카 쿨만의 구속사적 해석방법과 기독교론

최 승 락
(신학대학원 87년 졸업)

I. 서 론

창세와 종말에 대한 성경의 기록 그대로가 이 세상의 시작과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임을 아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여지나 실제상으로는 결코 당연하지만은 않음을 본다. 또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가 그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이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짐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 형편이다.

하나님은 창조와 구속을 통하여 이 역사와 인류 만물의 주님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셨다. 구속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자신 만유와 역사의 주인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정적으로 보여 주신 사실을 중심으로 삼는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되심과, 그리스도가 이 빛나는 역사를 그에게로 되돌리고자 신비롭게 행하신 구속사역에 철저히 근거한다. 이런 점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계시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는 구속사¹⁾의 주제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2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Irenaeus)가 이 구속사적 통찰에 근거하여 영지주의적 가현설을 반박한 것을 시발로 하여, 18세기에 남부 독일의 경건파(Bengel 중심) 사이에서 새롭게 부각되었²⁾ 19세기 중

* 신학대학원 '87년 졸업

1) 이 말은 '구속사'(redemptive history), '구원사'(salvation history), 또는 절문화된 용어 그대로 'Heilsgeschichte'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국내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대로 '구속사'로 쓰기로 한다. 물론 '구속'과 '구원'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말이나 구속사와 구원사라는 두 말이 전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굳이 구분해 보자면, '구속사'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구속 사건들의 객관적, 계시적 면을 강조하는 반면 '구원사'는 그 구속 사건이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적용적 면에 강조를 둔다. 본질적으로 둘은 분리될 수 없으나 때로 그 구분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쿨만은 결정적으로 '구원의 역사성'(Heil als Geschichte)을 강조한 점에서 특징적이다.

2) Heilsgeschichte라는 명칭은 이들에게서 기원했다.